

여 환자의 신체적, 감정적, 능력을 찾아낸다. 그래서 이 힘을 최대한 신체기능에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여 환자가 실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및 생산적 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적응과 능력을 갖도록 치료, 훈련하는 것이라고 정귀분 회원은 말하고 있다.

보조기 의지제작실은 전국 4개 종합병원중의 하나로 이들 보조장구들은 인체의 운동기전과 해부학적 기능에 기반을 두어 제작하고 착용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곳에는 두분의 선생님이 입원이나 외래환자들을 위해 분주히 보조장구들을 제작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사실은 원래 물리치료사들에게는 책임기사, 기사장이라는 승진제도가 있어 철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 그리고 근무의욕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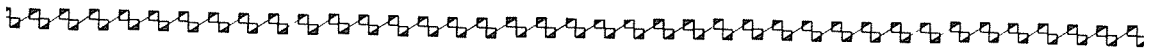
이와같이 재활치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물리치료실의 안중국회원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오랜 투병 생활로 심신이 피로한 이들에게 삶의 의의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숭고한 역할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물리치료사로서의 긍지도 느낀다고 한다.

우리의 교육과 기술수준이 아직 뒤진 것은 사실이나 졸업후에도 임상공부를 계속하여 회원 스스로가 자기 발전에 꾸준한 기술연마로 인정받는 물리치료사가 되어야 한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살얼음을 에는듯한 바깥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훈훈함을 느끼게 하는 재활의지의 현장을 취재한 기자는 사람은 반드시 외롭지만은 아닌 것일 뿐만 아니라 자리를 정해 서기에 따라서 보다 뜻있고 보람되고 즐거운 존재일 수도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下) '84 장애인 올림픽 참관기

정진우 / 서울대학병원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의학기록에서 기타 장애자들의 장애정도 분류를 점수 제로하게 되는데 상지는 각 관절운동을 5점으로 하여 총 60점 양쪽을 120점으로, 하지는 각 관절운동을 5점으로 하여 총 40점 양쪽을 80점으로 하여 총계 200점으로 장애의 정도를 판별하는 점이다.

따라서 신체의 몇 %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되어 훨씬 공정성이 있어 보였다.

우리 선수들은 역도, 수영, 맹인달리기 100 탁구, 궁도, 휠체어달리기, 사격, 투포환 등 8종목에 출전하게 되었다.

6월 15일 16일은 각 선수들을 인솔하여 기타 장애인 선수들의 훈련은 삼육재활원 김송석 선생님이, 맹인선수들은 맹인학교의 신동열 선생님이, 수영선수들은 정립학교의 전해사 선생님이 인솔하여 훈련에 임하게 되었으며 나는 선수들의 장애의 정도, 인적사항들을 적고 차트를 만들고 매일매일 환자들의 건강상태의 점검과 스포츠 맛사지, 간단한 처치들을 했었다.

전기합팩과 몇가지 약품(벤게이언고라든가 스프레이식 동통완화제 소염제 맛사지오일 프라스타 소양증에 바르는 약 간단한 진통해열제 소화제 등은 현지에서 곧바로 사서 돌발사고에 대비하였다.

내 계획은 아침저녁으로 매일 선수들의 건강 체크를 하고 각종 경기구경을 하며 많은 사진을 찍어 자료를 가지고 가야겠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선수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했으며 현지의 임원이 부족하여 양궁선수들의 뒷바라지 일을 맡게되었다. 양궁을 잘알았다면 분명 코치의 역할인데 양궁의 양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선수들에게 배워가며 익히기로 했다.

양궁은 김진호 외에는 경기규칙만 책을 보아 조금 알뿐 그야말로 백지상태였다. 또 양궁은 다른 경기와 달리 상당히 지구력이 요하는 경기였다.

왜냐하면 단 하루에 또는 한순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흘간이나 활을 쏘서 그 득점으로 승부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36발씩 8번을 쏘야하니 모두 288발을 쏘야하며 조준시발까지 하면 312발을 쏘야만 한다. 피약실에서 연습기간 4홀간과 본시합 4홀간 8일간을 계속 쏘야하니 몸이 불편한 선수들의 고생은 말일 아니었다. 더구나 남녀선수가 어린나이에 각각 훈련기간이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경력으로 국가대표라는 명예를 짊어지고 경기에 임하여 이들에게 무엇인가 그래도 메달을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 온 각나라 선수들은 대부분 나이도 많았으며, 경력들도 6-7년에서 10년씩은 되었다. 언어는 어벙벙한 영어로 선수들의 통화와 경기를 설명하여 알려주고 하자니 내 신세도 한심한데 그래도 이곳은 영어쓰는 사람과 단둘만이 아니라 모두 제나라 말만 잘하는 사람들 수십개국 인들이 모여 그나마 부끄럼없이 웃으며 빈정대며 아는척 하며 건성건성 쉽게쉽게 바디랭귀지마저 해가며 살게되니 그리 큰 불편도 없었으나 회의 석상이나 장황하게 영어로 늘어놓는 상황이 닥치면 짧은 영어가 한스럽기만 하였다.

드디어 6월 17일 개회식이 열리는 날이다.

각 나라 선수들은 모두 대회복으로 산뜻하게 갈아입고 모두 미첼파크에 모여 들었다. 유니폼을 입으니 얼마

나 모두들 잘나보이는지 모두 미남미녀 같았다. 이 대회 의 명예총장은 레이건 대통령이었으며 대통령이 예정시 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대회장 밖에서 각나라 선수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놀고 떠돌고 기념품들을 교환 하며 기념선물들을 사기도 하고 사진들을 서로 어울려 언제봤다고 한식구처럼 웃고 떠돌고 찍어대고 노래하고 춤추고 야단법석이었다. 그 중 특히 미국 여성마비 선수 들의 전통휠체어 댄스는 정말 근사하였다.

음악은 두박자 또는 네박자의 원무곡들이 계속 흘러 나오고 남녀 7~8명이 휠체어를 탄채로 음악에 맞추 어 돌고 돌아나오고 다시 들어가며 회전하는 춤이 부딪 칠듯 부딪칠듯 하지만 조금도 실수없이 얼마나 잘 하는 지 그 멋진 율동과 리듬과 박자에 맞추어 추는 춤솜씨 에 그만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드디어 오후 5시경에 레이건대통령을 태운 헬리콥터 3대가 날아오더니 개막식이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모두 공항에서 하듯이 몸수색을 하는 X-ray출입문을 통과하 여 개회식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스탠드에는 노랑고 하얗고 까만 그야말로 인간백화점 같은 군중들이 빈틈없이 차 있고 모두 일어나 박수치며 환영하니 모두 선수들은 물론 나까지도 덩달아 마치 뭐 가 된것처럼 손흔들며 안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단상에는 레이건대통령이 앉아 계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저 평범하게 다른 임원과 마찬가지로 좁은좌석에 겨 앉아서 웃으며 박수치는 것이었다. 과연 / 예정대로 개 화식이 시작되었고 성화가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소아마 비 선수에게 들려주고 선수는 뛰어서 점화대에 점화시 키어 드디어 '84장애자올림픽의 시작되었음을 만방에 고 하게 된 것이다. 조직위원장의 인사, 내빈들의 인사, 대 대통령의 축사 등이 이어지고 드디어 수 많은 고무풍선을 하늘에 날려 모든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대 대통령은 사라지고 곧이어 헬리콥터 3대는 하늘높이 날아 올라 모든 사람들의 환성과 더불어 개회식이 끝나게 되었다.

곧이어 잠깐동안 쇼가 개최되었는데 후에 안일이지만 내가 미국안내원인 "라니"와 춤추는 것이 미국내에서 발 행되는 한국일보에 사진으로 크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놀림감이 되었다.

제일 첫날 경기는 역도경기였는데 기타 장애자의 부류 에 속한 정금종 선수가 105kg을 들어올려(역도 경기종 목은 벤치프레스만 있다.) 동메달을 획득했다.

1등은 스웨덴의 닐스아케린달이 2등은 프랑스의 할 브파일렛이 차지하였다.

금메달 확보 예정선수였던 미국 선수인 와이네 워싱턴 선수는 평소에 125kg을 거뜰히 들어올렸는데 이 날은부 진하여 125kg을 세번이나 들어올리는 것을 실패하여 그 만 탈락되고 말았다. 첫 경기에 미국하늘에 태극기를 날 리게 되니 모든 선수들과 임원들의 사기는 충천해 있었 다.

워싱턴은 30세의 나소우 커뮤니티 대학의 학생인데 반 하여 우리 선수 정금종은 21세의 어린나이로 삼육재활 원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로 2살 때 어머니의 가출과 소 아마비를 앓게 되었고 11살 때는 아버지마저 잃어버린

고아였다.

그러니 그 동안의 고초와 역경이 어떠했겠는가? 가히 짐작이 갈만하다. 우리 선수들의 입장은 대부분이 이러 하였다.

장애자의 사회참여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과연 어떤 단체의 장애자나 오갈때 없는 불우한 처지 의 장애자만을 국가대표로 장애자의 대표로 내세우는것 도 국가적 문제인 것 같다.

많은 장애자 중에는 내노라고 행사하는 분들이 있으 며 그러한 분들이 스포츠의 선봉에 서서 올림픽에도 참 가해야 좀 더 좋은 기록과 여건이 마련될 듯 싶다.

이들제는 수영경기였는데 모두 예선에서 탈락하였다. 맹인들의 수영경기는 마지막 텃치부분에서 긴 스폰지 슝방망이로 머리 부근을 톡쳐서 라인에 올 것을 알려서 되돌아가도록 했다.

한때 탈리도마이드 중독증으로 사지가 절단된 채로 출 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도 양팔이 절단된 사람들이 수영선수로 참가하고 있었으며 양발로 헤엄치 는 모습이기가막힐 정도로 잘 하고 있었다.

이들 중 어떤 사람은 어깨에서 바로 손목과 팔이 붙 어있었으며 양팔이 없는 사람도 식당에서는 스포츠화를 벗고는 발로 째과 버터를 발라 손의 움직임과 똑같이 기 가막히게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식사때마다 힐끔힐끔 쳐다보긴 하였어도 차마 사진을 들이대고 찍지는 못하 였다.

단체경기는 준비도 되어있지 않아 출전치 못했으며 개 인경기에서도 모두 부진한 상태였다.

휠체어 달리기에서는 마치 벤츠와 포니의 대결과 같아 보기가 민망했다. 경기용 휠체어를 좀더 기능적인 것으 로 대치하지 않는 한 게임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투원반 에서는 기록의 절반도 못미쳤고 맹인달리기 100m 에서 는 아깝게도 4등을 기록했다.

양궁에서도 남녀선수가 선전을 했으나 등수에는 들지 못했다.

그곳에 온 독일선수가 얼마나 우리 선수에게 연습했느냐는 질문에 2개월 합숙하여 훈련했다 하니 "아이구 맙소사" 했다. 본인은 10년을 넘게 양궁을 해왔다고 했 다. 또한 자기네들끼리의 구름이 있다고 자랑도 했으 며 주선도 개인단체에서 해왔다고 한다.

늘 갖는 생각이지만 정말 고기를 잡도록 해주어야지 잡은 고기만 조금씩 주어서는 무력함만 남게 될 것이라 는 생각이 자꾸든다.

탁구에서는 예선탈락이 되어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 으나 우리가 참여한 게임말고도 안에 열거한 여러가지 보도들도 못한 게임들을 보고 자료수집하느라 실제로 손 이 모자랐으며 과연 88년도에 개최될 장애자 올림픽을 잘 치뤄 낼 수 있을까? 하든 의구심과 더불어 1984년 6월 29일 오후 6시 드디어 폐막식을 맞게 되었다.

폐회식은 우정과 화합을 표시하는 뜻에서 각국 국기와 선수단이 입장순서없이 자유스럽게 입장하였으며 관례에 따라 차기대회 개최국인 대한민국 국가가 연주되고 ICC 위원장의 폐회연설과 이진우 위원장 초청연설이 있었다.

이어서 성화가 꺼지고 우리팀들은 바삐 공항으로 떠날 차비에 운동장을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다.

- 1988년 서울에서 만납니다. -

(*)

중앙회소식

* 정기이사회

- 일시 : 1985년 1월 30일 오후 7:00
- 장소 : 협회 사무국
- 참석자 : 회장 : 김용천 부회장 : 표성봉
 고문 : 김형섭 이사 : 배성수 백진
 장경숙 임성수 김정숙 명철제
 이재갑
 직전회장 : 정진우 사무국장 : 홍정선
- 협회의 진행사항 보고
 1. 의료숫가의 각 치료에 대한 숫가를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질환별 구분을 작성하여 의료숫가 심의회에 제출
 2. 의료기사 연합회 공동으로 단독명의로 된 면허증 발급을 건의키로 합의.
 3. 김형섭 고문께서 이전에 전화를 증명하셨고 또 비디오를 기증하기로 약속
- 토의내용 : 84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중앙회 교육
 1. 일시 : 1985년 2월 7일, 24일
 2. 장소 : 서울(이화대학병원 강당)
 대전
 3. 회비 : 10,000원
- 정정기사 : 경북 대구지부장 박래준씨 바로 잡읍니다.

* 전국 지부장 연석회의

- 일시 : 1985년 2월 9일 오후 6시
- 장소 : 협회 사무국
- 참석자 : 서울 남부 이재갑, 북부 최재청, 동부 박승만
 서부 명철제, 중부 전상명, 전남 박정기
 부산경남 황현교 지부장 참석
- 토의내용 : 85년도 년회비 조기납부를 각 회원에게 촉구요망

* 회장단 동정

- 84년 11월 20일 체육부 훈련과학국장 방문
- 84년 12월 7일 태능 선수촌 김성집총장 훈련부장 방문
 체육부에서 태능선수촌 물리치료실의 실태 파악의 의뢰요청으로 미비점 및 보완책을 공문작성하여 체육부장관 앞으로 전송 발
- 84년 12월 8일 스포츠의학회 하권의 부회장 방문

* 긴급이사회

- 일시 : 1984년 12월 27일 오후 6:30
 - 안건 : 협회 사무실 이전에 관한 건
 - 참석자 : 회장 김용천, 부회장 표성봉
 이사 백진, 오경환, 명철제, 김정숙, 장경숙,
 임성수 이재갑
 직전회장 : 정진우 사무국장 : 홍정선
 - 토의내용 :
 1. 협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구입
 2. 신성상가 15평형 아파트를 구입하여 사무실로 개조
 3. 구입비 2300백만원 세금 및 기타비용 100만원
 4. 현재 협회자산금 1,800만원
 부족금 500만원
 5. 85년도 부족금 500만원은 신입회원 가입비로 변제
 - 물리치료사 1차시험 성황리 끝나치다
 - 선린상업고등학교
 - 905명 총응시자
 - 1985. 1. 28일
- *이전 협회주소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102-30
(신성상가Apt. 806)
TEL : 265-6588

1. 협회 사무실 구입

본 협회가 창설된지 20년만에 우리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종로3가에 있던 사무실을 급히 비워주게 됨에 따라, 또 다른 사무실의 전세 및 월세는 본 협회의 재정에 무리가 따르고, 또 언제까지 남의 집 신세를 질 수 없어 1984년 12월 27일 임시 긴급이사회를 개최,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의 사무실을 구입하는 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처사라는 공통적인 의견으로 만장일치로 현 사무실을 2,3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경위로, 매입금액 중 1,800만원은 현 협회재정으로, 나머지 500만원은, 현 협회 고문이신 김형섭회원이 200만원을 현 홍보이사이신 김정숙회원이 300만원을 대여해 주시어 우리의 집을 갖게 된 것입니다.